

7 산학협동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경기지역사회연구소

이 달 순

수원대 산업경영대학원장



1. 머리말

지난 6.27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방화란 지방자치를 뜻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는 그 주민들이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각기 그들의 고장을 주민들의 힘으로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데는 몇 가지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

대학과 지역사회연구모임

1. 지방화 시대 지역사회연구의 실상과 과제 : 대구사회연구소
2. 호남사회연구회의 활동 성과와 전망
3. 제주 4·3 탐구의 현상학 : 제주 4·3 연구소
4. 전남사회연구회의 활동과 과제
5. 연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6. 충북지역사회연구회의 활동과 과제
7. 산학협동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경기지역사회연구소
8. 경남사회연구소

이다.

첫째는 주민들의 단결이다.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에는 지역주민들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의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지방의 전통적인 의식도 시대의 변천에 따른 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경제의 활성화이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지방자치와 행정의 현대화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을 육성

하여야 한다. 셋째는 주민들의 참여열을 높이는 일이다. 주민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행동과 실행이 이루어지면 지역발전의 길은 빨리 열릴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요로에 건의하여 성과를 올리는 일이 연구소의 몫이라고 본다.

2. 설립 배경

경기지역사회연구소는 1993년 9월 설립되었다. 경기도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와, 경기도에 현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도 규합하였다.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은 연구실 위주의 연구와 학문 위주의 연구를 하는 경향이 정통성을 이루고 있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연구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가 특히 산업기술이 앞서가고 대학이 뒤따라가는 형편인 것이다. 이제 대학교수는 연구실에 앉아서 외국서적이거나 다른 학자들의 저서만으로 그의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사회와 부대끼고 사회가 전진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분석하며 그것을 기존의 학술과 대조하고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이론과 실기를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나 연구기관이 지원해 주는 몫은 분야에 따라 전문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대학이 이러한 교수들의 애로를 타개해 줄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뭉쳐서 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자 한 것이 설립 배경이다. 세미나 형식을 통해 각계 각층의 주

민들과 토론하고, 연구 성과를 기관지에 발표하고자 『약진경기』라는 월간지와도 제휴하였다.

우리는 경기지역이라는 지역성을 근거로 하여 경기지역의 사회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것은 경기지역에 근거를 둔 대학교수라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도 뒤따른 것이다. 이러한 모임의 활성화는 대학교수들의 실용적 학문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을 위한 봉사의 사명도 이행하며,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도 되는 것이다.

3. 연구소의 활동 내용과 방향

연구소의 첫 행사는 세미나였고, 첫 연구 지역은 수원시였다. 그래서 제1회 경기지역발전 세미나의 주제는 ‘수원시 발전의 제문제’였다. 1994년 2월 23일 수원시 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하였는데 1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주제는 문화부분으로서 ‘수원시민과 애향심’(발표자 이달순)이었다. 토론자는 유종기(월간 『약진경기』 사장), 우종모(장안전문대 교수)였다. 내용을 보면, 수원시의 지역적 문화이념은 경기도 문화이념인 ‘충·효’ 사상이나, 충·효 사상은 조선왕조의 왕권사상이므로 실학의 발상지인 수원은 문화이념을 실학사상으로 바꾸어야 하고, 실학사상은 개화기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므로 수원시민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애향심을 키우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걸어 세계화추진전략의 중심도시가 되는 방향으로 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주제는 행정분야로서 ‘수원시의 기획기능 제고방안’(발표자 김주환 강남대 교수)이었다. 토론자는 이상홍(수원대 교수), 고휘주(보훈연수원) 교수였다. 발표 내용은 수원시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

획기능을 제고하고 행정의 뒷받침을 발전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경제분야로서 '수원의 발전과 경제'(발표자 최병로 수원대 교수)를 주제로 토론자는 이명규(경원대), 백석현(중앙대) 교수였다. 수원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서부터 관점을 달리하는 토론이 열을 뿜었고, 그에 대한 대책 역시 토론자마다 견해차가 대단히 컸다. 수원시 경제발전의 방향은 상당한 연구가 요망된다고 보았다.

네번째는 교육분야로 주제는 '수원시 발전과 교육'(발표자 장덕삼 원광대 교수)이고 토론에는 엄규정(원광대), 권건일(수원여자전문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수원시와 그 근교에 많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들어섰고, 중·고등학교의 학급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가 농업 중심에서 산업체 중심으로 도시의 성격이 탈바꿈되고 도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수원시의 교육은 학교별 특성화 활동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섯번째 분야는 도시문제로서 주제는 '수원시 발전과 도시계획'(발표자 용환선 수원대 교수)이고 토론자는 임정순(경기대), 김철홍(수원대) 교수였다. 수원시는 자체 재정자립을 이룰 만한 생산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나 공해 유발 업체가 드물고 삼성, 필립스, 선경마그네틱스 같은 첨단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수원시가 산업입지를 선정하거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참고가 될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해문제가 다루어졌다. 주제는 '수원시의 환경문제 현황과 대책'(발표자 이상홍 수원대 교수)이었고 토론자는 하장보(「환경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총장), 가재준(재단법인 「아주산업환경」 이사장)씨였다. 이 토론에서 얻은 결론은 500억 원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각 가정이 쓰레기

줄이기와 그 비용도 부담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세미나의 성과는 컸다. 교수들이 각기 관공서와 해당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데이터를 뽑고 이를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는 수원시에 전달되었다.

4. 교육제도에 관한 문제제기

경기지역사회연구소의 제2회 세미나는 '교육개혁의 방향'이었다. 수원대 산업경영대학원과의 공동주최로 1994년 12월 6일 수원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5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대규모 토론의 장이었다.

첫번째 발표자는 김인영 의원(민자당 교육위원회 간사)이었다. 그는 교육개혁의 목표는 질 높은 교육,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의 다원성 신장, 교육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등을 통해 21세기에 맞는 한국인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보았다.

두번째 발표자는 김원웅 의원(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이었다. 그는 대학이 기존의 구태의연한 성장방법과 리더십을 가지고는 더이상 대학으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학은 주력학과가 있는 개성있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 각 대학이 자기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장점을 선점하여 발전시킬 때가 된 것이다. 그리고 각 대학이 자체적인 특성에 맞는 주력학과 중에서 1~2%의 특체가 선행된 기부금 입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발표자는 강인수 교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였다. 그는 초·중·고교 시절에는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여 스스로의 창의적·실천적 모습들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어린 시절 감동으로 공부해야 진정한 교육의 기초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대학

에 들어오면 공부를 시켜야 한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 및 편의 시설, 교통망 확충 등의 선결과제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숙사를 확보하고 도서관의 무제한 개방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경기도 거주시간을 높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실력배양 외에 지역경제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내에서 학생들의 거주시간을 높여 주었을 때 학습량이 늘어나고 경기도의 고등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달순 교수(수원대 산업경영대학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는 대학입시위주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개혁을 단행했으나 근본적인 치유책은 못 된다. 대학입시에 따른 병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온 가정과 사회가 자녀들의 입시공부에 얽매어 있다. 초·중·고교의 학업은 모두가 입시과목 수업에만 몰두한다. 인성교육이나 스포츠, 문예 등의 취미활동은 모두 동한시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에게 일찍이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게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창의력을 저해시킨다. 또한 많은 재수생과 도피성 외국 유학생들의 증가 문제도 심각하다.

그 뿐 아니라 대학교육도 크게 개혁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기의 적성보다 합격 위주의 학과선택에서 오는 부작용은 말할 나위 없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습과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선진적 환경을 갖추지 못한 우리 형편으로서 그만큼 학생들에게 노는 시간을 많이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의 강의도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용적 교육이 아닌 학자를 양성하는 듯한 이론 위주의 학문 전수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이중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고교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보다 명문대학 입학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가 대학의 전공을 그다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5. 연구소의 정책 추진방향

1) 기능사 자격시험의 현실화

오늘의 교육병폐가 대학입시제도에서 기인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혁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학의 정원이 늘면 대학의 시설도 병행해서 확대된다. 대학의 문이 넓어지면 초·중·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은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 여유있는 생활을 즐긴 대학생들은 자기의 전공을 찾아 입학하게 되었으므로 면학에 힘쓰게 된다. 그것은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졸업을 하면 바로 '기능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만이 그가 원하는 직장과 직종의 입시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자격증은 기술직뿐 아니라 관리직, 사무직, 영업직에도 모두 해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에서는 자격증 시험을 위한 수업에 열중하게 된다. 그것은 실용적인 교육이 된다. 입사후에도 그들은 그의 직종에서 숙련공처럼 일을 잘 하는 사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들어가기 어렵지만 졸업장은 취득하기가 용이하다는 평가이다. 자격증 취득제도는 대학입시경쟁을 입시시험경쟁으로 바꿔 놓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시험의 응시자격은 학교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이야 한다. 이는 교육계 풍토의 상당한 변화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 대학교육의 개혁

대학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취득학점을

늘려 일주 내내 주야로 공부해야 한다. 그것도 학문 위주가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실무를 예습하는 실용적인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실용적 교육의 첫째는 산학협동이다. 우리나라 산업체는 재연수를 통하여 그들의 소질과 능력을 배양한다. 대학은 이중으로 수모를 당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무시한다. 사회가 대학의 전공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을 사회진출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은 들어가기 쉽고, 나오기도 쉽지만 사회진출 경쟁이 어려운 교육체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인생의 경쟁을 의미있게 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성년기와 산업사회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사회연구소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이와 같이 정해 놓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6. 산학협동과 연구소의 역할

1) 지역기업체와 학과별 협동

산학협동 교육은 경기지역사회연구소의 정책 방향이다. 그것은 지역사회와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본다. 산학협동의 주체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다. 과거의 지방관청은 이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더구나 그들의 임무인 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 지방자치시대에서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선 기초 또는 광역의원들도 이 문제는 당면과제로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대학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교육부 소관이라는 관념 때문에 교육의 정책방향에 관심을 갖지 않는 모양이다. 지역의 교육위원회는 초·중·고교 교육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대학의 자존심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산학협동하자고 제의

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대학을 찾아가 산학협동하자고 제의하지도 못한다. 또한 지역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연결해주고 추천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지역사회연구소가 중개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경기지역의 산학협동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도지사나 실무국장 등이 참여하고 도의원들과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에서 그 방향이 도출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소의 제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경기도의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을 도내의 기업과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매결연을 통하여 대학은 현장실습 기회를 갖게 되고 학생들은 기업을 위하여 노력봉사를, 교수는 기업을 위한 지식 전달 역할을 해줌으로써 문자 그대로 산학협동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2)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활용

수원대학교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2천억 원을 출자하고 수원대가 5만 평의 대지와 건물신축 등 500억 원, 경희대와 아주대가 500억 원 정도를 출자함으로써 3천억 원 규모의 산학협동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98년 내에 완공될 이 센터를 사이언즈파크라고 일컫는다. 여기에는 물론 전문 연구원이 종사하지만, 각 분야별 전공교수가 참여하게 된다. 각 대학의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겠지만,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인 교수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경제발전에 기여케 하는 것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제품 개발 목적을 위해 센터의 연구원들과 기술자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공동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제품개발이나 개량뿐만 아니고 기업의 관리·운영·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자문에 응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원센터의 연구 못지 않게 본 연구소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하나 고무적인 것은 수원대에 '라비돌'(L'AvieDor)이라는 유료 양로원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후생활을 위해 설치된 고급 유료 양로원에는 국내·외 석학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입주하게 된다. 이 은퇴하신 노교수들을 경기지역사회연구소의 석좌연구위원으로 모실 작정이다. 그 분들이 조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들의 노련한 경륜이 노후 생활 안식처로 택한 거주지에서 마지막 정열을 쏟아 산학협동과 연구소 일에 참여한다면 어느 연구소보다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7. 맺음말

연구소의 중요한 역할은 정책방향의 제시다. 그 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건설·공해 문제 등을 분석, 정리,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는 물질적인 필요로움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직접 실천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방향만의 제시로 그 임무가 측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제시는 어디까지나 사회 상층부에만 머무를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역사회연구소

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을 중요시하고 우리의 연구결과를 주민들에게 전달, 계몽, 선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홍보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 스포츠라고 믿는다. 지역마다 초·중·고 대항전을 여는 것이다. 지역마다 전통적인 아니면 신설 라이벌 학교가 존재한다. 이들 학교 대항 라이벌 스포츠 경기를 펼치는 것이다. 라이벌전이 성황을 이루게 되면 그 준비를 위하여 후원회가 조직된다. 이러한 모임과 라이벌전의 주선 역할을 본 연구소의 사무국이 관장하고, 지역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연구결과와 홍보와 주민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애향심과 단결의 정신 그리고 진취적인 정신을 함양시켜 준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를 경기 지역사회연구소가 보여줄 것이다. ■

이달순/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경기도 어문교육연구회장, 도사편찬위원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수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산업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 정치사 I·II』(공저) 등이 있고, “한국 정치사의 재발견: 민주사관과 시민혁명론을 중심으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